

[먼저 / 훈련의 방향부터-] 해설을 읽기 전에 한 번 읽어 봅시다.

- ① 비문학 지문에는 잉여가 없다. 다만, 정보의 중요도만 있을 뿐이다.
- ② 지문 독해 방법들이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③ 지문의 흐름을 장악하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④ 지문의 구조가 보이면 좋다. 그러나 독해력이 먼저다.
- ⑤ 수능 독해는 '불완전한 정보 처리 과정'이다.

지문 '차분히' 읽고 전체 '독해' → 선택지 읽기 → '이해' 후 판단 or 지문으로 돌아가서 부분 '독해' 후 판단

수능 독해는 '이해' 아니면 '기억'이다.

독해력 상승 → 공통감 형성 → 미시적 독해의 완성 → 독해의 끝

[수능 독해의 기본 : 독해력을 키우는 습관]

- ① 첫 문단은 무조건 감속이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물리적인 첫 문단 / 흐름이 바뀐 후 첫 문단
 - 첫 문단은 화제를 제시하거나, 방향을 암시한다.
- ② 각 문단 첫 번째 줄은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차분히 읽는다.(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 ③ 차분히 읽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 문장, 문단들이 등장한다.
 - 속도를 줄여 차분히 읽고 / 손을 쓰거나 / 일단 처리하며 내려가거나
- ④ 개념 정보 / 방향 정보 / 사전 정보 / 세부 정보
 - 1) 개념 정보(C) : 중심 화제의 개념(이해해야 한다)
 - 2) 방향 정보(D) : 글의 흐름, 방향(보이면 좋다)
 - 3) 사전 정보(B) :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가 깔아주는 배경 지식(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억)
- ⑤ 지문의 구조가 보이는 순간 가속이 시작될 수 있다.(구조가 보이면 정보량이 줄어든다.)
- ⑥ 중요하면 물어본다.(중요한 정보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 공통감 형성
 - 1) 문제 - 해결 2) 차이 3) 관계 4) 과정, 원리, 순서 5) 통시 6) 개념 - 사례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1주차 독서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독서'는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를 비교하시면 더 좋고, [사과의 진화]라는 부분 역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1주차] 독서 수업 지문

2015학년도 수능 B형 - 해겔과 뒤르켐의 시민 사회론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첫 문단 잘 읽기(첫 문단은 감속이다.)
- 주제를 먼저 암시하거나 화제를 대놓고 제시한다.
- ② 독해력이 먼저다. 우리는 1년 동안 잘 읽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
단, 도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다.
- ③ '문제' - '해겔'이 보이면(도구 1)
1) 정보의 중요도가 변별된다.
2) 체감 정보량 ↓ = 흐름을 탈 수 있다. = 효율성
- ④ '차이'는 언제나 중요하다.(도구 2)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C)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볼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D)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첫 문단은 감속이다. 항상 차분하게 읽는다. 첫 문단을 잘 읽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첫 문단은 중심 화제가 제시되거나 주제가 먼저 제시된다. 그 와중에 첫 문단 전체를 묶고 '익숙'이라고 적어두자. 이 흐름에 익숙해지라는 건데, 이것은 다 설명하고 얘기할 테니 일단 표시만 해 둔다.
- ② 사회 이론의 개념이다. 특별한 말은 없으니 사회 이론이네! 하고 흘러갈 것이다. 또한 사회 이론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리 없이 흘러갈 것이고, 강사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 ③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문단 마지막 문장은 방향 정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표시해보자. 물론 시민 사회론은 빼고.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볼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답은 '시대'이다. 내가 이 문장을 방향 정보라고 설명을 했으니,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게 왜 방향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 결국 이후의 내용에서 시민 사회론에 대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시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방향이다. 정확히는 이 문장에서는 이 글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는 '시대와 '시민 사회론'의 연관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 위에서 사회 이론은 사회 상황, 역사적 조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했다. 시민 사회론 역시 당시 시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이 글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될 것이다. 즉 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④ ①에서 내가 첫 문단을 묶어놓고 익숙해지라고 했었다. 하나만 문자. 사회 이론과 시민 사회론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사회 이론 중 시민 사회론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 이론이 시민 사회론보다 그 범주가 넓다. 즉 사회 이론 → 시민 사회론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좁혀지는 흐름에 익숙해지자. 기술 지문의 첫 문단은 많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쓴다. 일단 넓게 얘기하고 점점 초점화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자주 봐서 이런 흐름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시험 때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잘 읽히게 된다. 결국 수능 때 첫 문단은 안의 명시만 조금 바뀌는 것이지 쓰는 방식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프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준다는 점에서 ①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고 하는 ②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③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④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아무튼 우리는 헤겔은 무조건 기억할 것이다. 원래 지문에 제시된 사람 이름은 잘 안 까먹는다. 그 와중에 조금 신경 쓴다면, 헤겔이 나왔으니 헤겔의 시민 사회론은 제시하겠지. 물론 미리 이럴 필요는 없다.

국어 영역

- ② 첫 번째 꺾쇠 「 」를 한 번 읽어보자.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시대네~’ 한 사람은 첫 문단에서 ‘시대’라는 말이 보였던 거다.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다. 첫 문단에서 ‘시대’와 ‘시민 사회론’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를 파악했거나 혹은 ‘시대’라는 단어가 하나만 명확히 보였더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헤겔이 살던 시대로 보인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와중에 실전에서 어느 정도 할 거냐면, 프러시아, 빈부 격차, 계급 갈등 정도 기억하거나, 아무튼 ‘안 좋았군.’ 정도 할 거다. 물론 이 기억은 나의 주관적인 기억이므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헤겔이 살던 ‘시대로 보였으면 좋겠다.’
- ③ 지금부터 잘 읽던 와중에 도구를 끼여봐 볼 거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도구는 실제 시험 때 보이지 않아도 된다.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도구를 쓸 수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다. 도구는 그냥 강사의 가르치는 수단이자, 여러분들의 학습 도구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다만 몇 가지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꺾쇠 「 」에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문제 - 해결이다. 이 도구가 보인다면, 정보의 중요도가 변별될 수 있고, 체감 정보량을 많이 즐기면서 흐름을 탈 수 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시대와 시민 사회론의 연관성이고, 이미 꺾쇠에서 헤겔이 살던 시대가 제시된 상황이다. 문제 - 해결이라는 도구를 끼여봐 볼 거다. 생각해보자.

시대() → 시민사회론()

괄호를 채워보았나? 결국 문제 - 해결을 끼여보면 시대 = 문제 / 시민 사회론 = 해결책이 되는 구조다. 즉 우리에게서 해결인 시민사회론이 압도적으로 중요할 거고(정보의 중요도 변별) 이 와중에 이것이 보인다면 그냥 헤겔이 살던 시대는 ‘문제’ 투성이 되는 것이다. 즉 ‘문제’라는 흐름으로 읽힐 테니 체감 정보량이 줄어든다. 또한 해결은 언제나 중요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도구는 부수적 수단이다.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이면 좋은 것이다.

- ④ 두 번째 꺾쇠 「 」는 헤겔의 생각들이므로 차분히 읽어 내려간다. 나와 여러분의 기억이나 맞춰가면서 내려가보자. ① 공리주의를 긍정했다는 것은 기억할 것이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를 할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공리주의를 긍정했다는 걸 각인하고 내려가겠다. 중요한 것은 도구를 쓸 수 있다면, 이 공리주의가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는 말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리주의를 긍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일까? 아니면 덜 중요한 정보일까? 아마도 덜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왜? 해결을 못했었으니까. 즉 문제 - 해결이 보이면 정보의 중요도를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마찬가지로이다. ②의 공동체적 윤리성의 경우는 보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인다. 일단 나는 보였으니까 공동체적 윤리성을 강조했나보다 하고 내려간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차분히 읽으면 사실 어려운 문장은 아는데, 시험 시간에 읽으면 잘 들어오는 문장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보일 거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다. 물론 ③ 직업 단체와 복지 행정 조직은 보일 거고 각인이 된다. 하지만 예네들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덜 중요하겠지. 결국 도구를 쓸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보의 중요도가 변별되는 것뿐이다.
- ⑥ ④에서 ‘따라서’를 보면, 일단 긴장을 하자.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해 놓고 따라서, 이때, 이와 같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그냥 이 문장 출제한다는 뜻이 된다. 꼭 알아 두자. 이 와중에 우리는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헤겔은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장. ①부터 ④까지 우리에게서 무엇이 중요하냐? 당연히 ④가 중요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물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④가 중

요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나는 이것을 결국 ‘해결’이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험 때 ‘아, 이게 해결이구만. 당연히 중요하겠어. 물어볼 테니까 챙겨야지. 잘 읽자.’라고 생각하고 읽는 게 아니다. 그냥 지문 읽을 때 얘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이것을 공동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공동감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즉 나는 계속 ‘워라서 중요하다.’, ‘워라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밝힐 거고, 다만 너희들은 자주 듣다보니 이런 비슷한 것들이 모두 중요하게 느껴지기만 하면 된다. 어쨌든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헤겔이 시민사회가 국가에 협력했다는 것은 무조건 기억한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이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①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②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③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④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한편’이 나왔다. 다른 얘기한다는 거다. 헤겔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헤겔의 시민사회론 말고 다른 이론 얘기한다는 흐름이 되겠지. 물론 미리 예측할 필요 전혀 없고, 우리는 습관만 잘 가지면 된다. 다른 얘기 할 거니까 다시 차분히 읽어줘야 한다.
- ② 「 」부분 읽고 뭘지 생각해보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주제나 지문의 흐름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면, 이것은 뒤르켐이 살던 ‘시대로 보일 것이다. 이 와중에 프랑스, 빈부 격차, 계급 갈등, 르 샤플리에 법 등을 기억하며 내려갈 것이다. 물론 기억은 내 주관적인 것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할 거란 얘길 하는 거다.
- ③ 글을 잘 읽고 있다면, 2문단을 조금 차분히 읽어주었다면, 사실 3문단부터는 알아서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3문단 뒤르켐의 내용이 2문단 헤겔의 내용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뒤르켐은 ① 공리주의를 부정했다. 차이로 기억날 것이다. 또한 ② 도덕적 개인주의를 강조했다. 물론 이것은 2문단에서 헤겔의 공동체적 윤리성이 보였어야 같이 보이는 것이다. ③ 직업 단체를 까먹을 리 없다.
- ④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④이다.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얘가 워라서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많은 학생들이 ‘해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들린 말도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에게 이 내용이 먼저 각인되는 이유로 ‘차이’를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뒤르켐 것을 보자마자 헤겔과 대비되는 차이를 느끼고 각인할 것이다. ‘차이’는 언제나 중요하다. 나처럼 의식적으로 차이를 확인하면 좋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이것이 너무 중요한 차이처럼 느껴져서 지문에서 놓치지않고 읽으면 된다. 결국 헤겔은 국가에 협력하는 거고, 뒤르켐은 국가를 견제하란다.

국어 영역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의 이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끝까지 차분히만 읽어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 ②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떠올려 보자. 헤겔은 국가에 협력하라고 했고, 뒤르켐은 국가를 견제하라고 했다.
- ③ 주제를 재강조하며 끝내고 있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독서 1번 문제 : 답 ①

나는 2번, 3번, 4번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해설 보면서 해결하면 된다. 난 오로지 1번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논지 전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42%이다.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을 거고, 스스로 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학생들은 꼭 차분히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해보자.

①에 무색무취라고 적어 놓자. 무슨 말이나면, 이 선택지를 우리가 처음 보게 되면, 아니라고 곳기도 뭐한데, 그렇다고 답처럼 또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약간 무색무취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답으로 딱 떨어지기에는 덜 자극적이라,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내려간 학생들이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는 ④와 ⑤에 골리게 되어있다. 물론 둘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일단 ④부터 설명하겠다. ④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18%이다. 무슨 말에 골린 걸까? 비교, 평가라는 말에서 아마 ④를 골랐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안 골랐으면 좋겠다. 이미 앞의 '쟁점을 도출한 후'가 틀린 거다. 쟁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루는 지점을 말하는데, 그런 건 이 지문에 없기 때문이다.

⑥를 고른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⑤는 분명히 자극적인 게 맞다. 다만 선택지 자체만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다. 보통 학생들이 이 지문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다. 바로 '헤겔과 뒤르켐'이다. 머리에 헤겔과 뒤르켐이 달랐다는 것이 명확하게 박힌 채로 ⑥를 보면 그냥 바로 '다른 관점'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다른 관점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헤겔과 뒤르켐을 떠올리고 아싸! ⑤번! 하고 끝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끝나면 채점할 때 역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능 때 우린 이 문제 안 푼다. 다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단 ⑤ 옆에다가 적어두자. 1) 선택지 잘 읽기. 아무리 자극적인 키워드가 끌리더라도 선택지는 차분하게 잘 읽자. 정신차리고 잘 읽으면 이런 말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굳이 이것을 맞게 만든다면 다른 관점이 헤겔과 뒤르켐이 맞다고 할 때, 앞의 동일한 사례는 시민사회론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론이 사례일 수도 없고, 물론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다.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은 'A'라는 사례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글이 아니다.

⑤ 옆에다가 또 적어두자. 2) 첫 문단 잘 읽고 주제에 집중
⑥를 안 고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이 글에 주제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시대와 시민사회론의 연관성이다. 즉 시대가 달라지면 시민사회론도 달라지는 것이다. 무슨 단어만 머리에 명확히 있었어도 ⑥를 안 고르게 될까? 바로 '시대'. 헤겔이 살던 시대와 뒤르켐이 살던 시대가 같은 시대인가? 다른 시대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가 될 수 없다. 이 글은 시대와 시민사회론이 연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헤겔이 살던 시대와 시민사회론, 뒤르켐이 살던 시대와 시민사회론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는 글이 된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①을 갖지 않고 내려왔다가 ⑤에 골린 경우가 많은데, ①을 애초에 그어버리고 내려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이 그렇다면 '사례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사례는 보통 '예를 들어', '가령' 이런 식으로 제시되고 몇 줄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이 통으로 아무 표지 없이 사례인 걸 처음 봐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챙겨두면 된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